

109 학년도 제 1 학기 유라시아재단 국제 세미나  
아시아공동체: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모 시리즈 강좌(13)  
주제: 일본 근세 마조신앙의 도래와 발전

제 13 회 유라시아 재단 국제 세미나에서는 텐리대학(天理大學) 국제문화학부 교수이자 본교 일본학과 초빙교수인 후지다 아키요시 (藤田明良) 교수를 초청하여 “일본 마조신앙 전파”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후지다 아키요시 교수는 근세사, 국제교류사를 전공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만에서도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마조신앙을 주제로 후지다 아키요시 교수가 실제로 탐방하고 수집한 귀중한 자료를 가지고 교사와 학생들을 인솔하여 오키나와, 규슈, 혼슈 각 지역에 남아있는 마조 조각상을 관찰하고 마조신앙의 전파 경로와 역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1. 오키나와와 규슈의 마조신앙은 중국인 거류지와 강한 관계가 있다.

(1) 오키나와: 지리적 위치의 관계로 인해 오키나와의 마조신앙은 일본 본토보다 150 년이 앞선다. 15 세기 명화유구공선(明和琉球公船)이 푸저우(복주,福州)와 나하(那覇)를 왕래하면서 중국인들은 상하천비궁(上下天妃宮)을 건축했다. 현지 마조 조각상 유적에 의하면 유구국왕(琉球國王)이 섬기던 구메무라(久米村)사족 위씨가 마조를 자신의 수호신으로 삼았고, 쿠메지마 박물관(久米島博物)에 소장하고 있는 마조 조각상에서 현지의 사쿠가와가(佐久川家)가 마조 조각상을 뱃머리에 놓아 수호신으로 삼았던 것을 알 수 있다.

(2) 규슈: 1550-1630 년 동안 많은 당나라 배(唐船)가 고토(五島)를 향해했고, 히라도시(平戸市)는 토진마치(唐人町)를 발전시켰다. 히라도시에는 여러 개의 사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와치(河内) 관음당의 마조 조각상은 정성공(鄭成功) 부자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이교지(最教寺)에는 뱃머리에 마조 조각상을 소장하고 있으며, 그 머리 모양은 명시대 때의 여성의 머리 모양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후지다 아키요시 교수는 이를 일본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마조 조각상으로 보고 있다. 그 밖에 야쿠시도(藥師堂)의 마조는 관음 조각상으로 추앙받고 있으며, 규슈일대에서는 마조를 보살이라 부르는데, 이렇게 마조를 관음화신(觀音化身)이라 생각하는 것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러한 생각을 대중들이 더욱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 나가사키 지역이 쇄국정책(鎖國政策)을 실시한 후 당나라 배는 나가사키만 입항할 수 있게 되면서 규슈 항구의 중국인 대부분이 집중적으로 이주해 「토진야시키(唐人屋敷)」가 성립되었다. 당시 당선이 입항할 때 뱃머리에 있는 마조는 모두 현지의 「삼당사」를 안치했다. 에도 시대에는 조각상을 사원에 전달하는 행사가 나가사키의 전통이 되었으며, 그 외 가고시마(鹿兒島), 미야자키(宮崎), 오이타(大分) 등 지역에는 쇄국시대 당시 현지의 다이묘 시마즈씨(大名島津氏)가 지역을 보호해 주어 많은 중국인들이 부락을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사쓰마 반도(薩摩半島)의 노마산정(野間山頂)에서는 장기간 동안 구마노노카미(熊野神)와 약사불(藥師佛)을 신봉해 왔으며, 시마즈씨는 마조신상을 모셔 산 이름을 니앙마산(娘媽山)이라 하여 많은 뱃사공들이 이를 니앙마산 관현(불보살)이라 부르며 숭배하였다.

## 2. 에도 막부(江戸幕府)와 마조 및 혼슈의 마조신앙 발전

명칭 변천을 기록한 문물 서적 《화이변태(華夷變態)》는 막부 관원 하야시 가호(林鷲峰)와 하야시 호코(林鳳岡) 부자가 편찬하였다. 그 중 정씨(鄭氏)와 시랑군대(施琅軍隊)가 대치하고 있는 것을 묘사한 장절에는 마조신앙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이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전설이지만 당시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가 마조신앙의 존재를 들은 것으로 추정된다.

(1) **전파 경로:** 에도 시대부터 마조신앙이 혼슈에 전파되었다. 마조신앙이 전파된 첫 번째 경로는 여행자의 견문이라 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중국에서 전해온 「천비」 관련 서적 때문이다. 그 밖에 도쿠가와 고산케(德川御三家)의 미토번(水戸藩) 영주는 마조신앙으로 번내 항구의 항로를 개선하고, 이러한 신앙은 육해(陸海)를 통해 동일본으로 점차 뻗어 나갔다.

(2) **호쿠리쿠와 오사카의 마조신앙:** 에도 시대 때 중국으로 수출되는 화물은 대부분 오사카와 일본 각 항구에서 시작되어 나가사키를 지나 중국으로 재수출

되었다. 이는 마조신앙이 전파된 경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이시키와현(石川縣) 아나미즈정(穴水町)의 「공작관음」, 후쿠이(福井) 보문사의 「천비마조관음보살」, 오사카의 해천사, 가와치고쿠분(河内國分) 등 지역에 마조 조각상이 존재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호쿠리쿠(北陸)와 간사이(關西) 지역에도 마조신앙이 전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동일본의 마조신앙:** 미토 고몬(水戸黃門)이라 불리는 도쿠가와 미쓰쿠니(德川光圀)는 동일본 마조신앙 전파에 매우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도쿠가와 미쓰쿠니는 금악(琴樂)서화(書畫)에 능한 심월선사(心越禪師)를 초대한 것도 마조신앙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1690년 도쿠가와 미쓰쿠니는 미토외항(水戸外港)의 이소하라(磯原), 이소하마(磯濱)에 두 개의 천비마조 권현사를 세웠으며, 신부(神符) 기록에 의하면 이를 「성모원군」이라 칭하고 있다. 마조신앙은 동일본을 따라 내하(內河) 향로로 들어와 지바(千葉)와 미야기(宮城)에도 천비성모원군 조각상과 그림이 전파되어 있고, 최북단에서 아오모리(靑森)의 오오마(大間)까지 천비 권현사가 있다.

### 3. 후나타마(船玉神) 신앙과 마조 및 근세 일본의 마조신앙

이어서 후지다 아키요시 교수는 일본인들이 왜 마조를 믿는지에 대해 소개했다. 후지다 아키요시 교수는 일본인들은 배에 영혼이 있다 믿고, 배를 만들 때 선장은 인형, 머리카락 등을 선체에 넣어 영혼을 모셔 둔다고 언급하였다. 에도 시대 중기에는 선명신(船明神), 선옥보살(船玉菩薩) 등 선신(船神)이라는 이름으로 영혼을 기리기 시작하였으며, 선옥절(船玉節)을 개최하여 천비 조각상을 선신으로 삼아 향해 안정을 기원하기도 했다. 일본 각지 박물관에 소장한 마조계(媽祖系) 후나타마(船玉神)의 족자와 조각상 그리고 후쿠이현(福井縣)의 거상 모리타가문(森田家)의 「후나타마초상화」 등을 통해 마조신앙의 전파가 깊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후지다 아키요시 교수는 그림에서 천비계(天妃系) 후나타마와 일본 서기에 나오는 제신을 비교했는데, 예를 들어 관광 수호신인 사루타히코신(猿田彦神) 처럼 두 신의 자세와 배치(擺置)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토번(水戸藩) 후기에는 마조와 관련된 권현사는 오토타치마나히메(弟橘比賣) 신사(神社)로 바뀌었으며, 메이지 정부(明治政府)의 국수주의(國粹主義)가 고개를 들면서 신도 정책의 고조와

폐불파석(廢佛毀釋)운동은 일본 마조신앙의 혼동 현상으로 나타났다. 후지다 교수는 아오모리 오마마치(靑森大間)와 대만 북항(北港) 조천궁(朝天宮)의 마조신앙이 교류하는 것처럼, 일본의 마조신앙이 서로 다른 형태로 각 신전에 나타나고 있으며, 마조신앙은 여전히 현대 일본인의 일상생활에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번역: 이세희(李世曦) 한국어문학과 석사과정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부교수